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교수 추천 우수 졸업논문

1. 도시 교회 구성원의 지역성 회복에 대한 고찰 / 유명업
2.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관점에서 본 성찬 / 조상우
3. 학생신앙운동(S.F.C.)의 교과과정 연구 / 진병백
4. BHS, BHQ, HUB의 사본학적 활용원리에 관한 연구 / 배현철

도시 교회 구성원의 지역성 회복에 대한 고찰

유영업

I. 서론 - 문제 제기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교회론의 위기이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교회의 의미를 잃어 가고 있고, 교회의 소속감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그 두드러진 현상으로 교회의 구성원들이 지역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의 교회당이 위치한 곳과는 무관하게 그 구성원을 늘이는데 관심이 고조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우선, 교회 구성원들 간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어려움을 들 수 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서 '교제 공동체'이다. 그런데 교회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다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둘째, 상호 교제의 부재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연단과 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상실하고 있다. 교회는 사람들로 북적거리지만 성장하는 성도는 많지 않다. 모든 성도는 교회에 속한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경건이 점검되고 성화로 나아가는 것인데 수평적인 관계를 나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성도의 성화는 매우 더디거나 아예 무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향하여 교회 출석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개인의 성화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셋째,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의 분리가 심화됨으로 인해 가정의 문제를 말씀으로 치유할 여건이 마련되기 어렵다.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이다'라는 말은 가정이 세워져 감에 있어서 교회의 중요성과 더불어 교회가 건설됨에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말이다. 교회 지도자들이 행하는 가정 심방이 수시

로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적 한계와 기독교 가정 건설의 어려움은 깊은 관련이 있다.

넷째,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먼 거리에서 다니는 성도는 자기 이웃을 교회로 전도하기 어렵고 교회 주변의 사람을 전도하기에는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 멀리 흩어져 있다. 그런 까닭에 교회당이 위치한 지역은 교회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상을 보게 된다.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복음화 전략을 생각할 때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전략을 구사했으나 본고에서는 지역적이고 구조적인 전략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도시 교회의 복음화 전략은 복음화 전략의 중요한 면을 간과하고 있다. 설교자를 중심으로 재편되기를 거듭하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화 전략"을 잃어버렸다. 이러한 경향은 교회의 본질을 위협하고 있고, 교인들은 교회의 의미와 영광을 상실한 채 진정한 성화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역성을 상실하는 교회는 교인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더욱더 기울어져 가고 있고, 교회의 유기적 관계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게 된다.

본고는 도시 교회가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전략을 세울 때, 각종 전략을 짜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교회 구성원들이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며 그 지역 사람들과 빈번히 교제하고 그 속에서 빛과 소금 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전체 하나님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II. 본론

1. 교회의 지역성에 대한 정의

(1) 교회의 지역성

미국에서 교회를 새로 세우고자 할 때 기존 교회로부터 반 마일 밖에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¹⁾. 우리 교단 역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일정한 거리를 제한하였다²⁾. 이것은 교회가 일정한 지역에 자리하는 집단으로서 그 지역과 무관

1) Leiffer Murray, 박근원 역, 「도시교회 목회론」, (서울:기독교서회, 1977), P.109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교회가 어느 곳에 건물을 세우고 자리잡고자 한다면 그 교회당이 위치한 곳의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들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형성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관계 형성은 공간적인 한계를 가지게 되는데 교회 구성원이 회집 되고 흠어지는 중에 항상 맞닥뜨리게 되는 거주민들의 일정한 한계 내의 영역을 특정한 그 교회의 '지역'이라 하고, 그 교회의 구성원 전체 중에 일정한 범주 안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비율을 '교회의 지역성'이라고 정의한다.

실제로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사회에서 교회의 면모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빠르게 전파됨이 분명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단지 소문이나 뉴스로 알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오가며 눈으로 보고, 찾아볼 수 있고, 방문해 본 사람끼리 화제로 삼을 수 있는 정도의 일정한 구획을 말한다. 즉 지역 주민들 속에 위치해 있으며 주민들과 교회 구성원 사이에 익명성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공간적인 한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회학자들은 지역사회의 정의를 내릴 때 외형적인 구조보다는 주민들의 특성에 더 큰 관심을 갖는다²⁾. 주민들의 안정성, 이동성 등을 관찰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사회적인 특성보다는 공간적인 한계를 말하는 것이다. 교회는 사회적 특성을 이용해야 하지만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는 한 지역 교회가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경향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지역 교회는 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전에 그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이질성을 극복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을 한정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데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회집 되는 장소인 교회당이 위치한 지역에서 교회 구성원들과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거주하며 서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때 교회 구성원들이 거주하는 범위의 한계는 20-30분 내외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약1km)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 교회의 지역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

2) 32회 총회(1982년) 시 행정부 결의사항으로 개척교회를 할 때는 기존교회와 거리가 500m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고, 이를 39회 총회시 재확인 하였다. 그러나 40회 총회(1990년) 시 행정부 결의사항으로 "지교회의 거리는 300m로 한다(노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차안에 부케기로 하다)."로 변경되었다.

3) Leiffer Murray, 앞의 책, P.78

현시점에서 여러 논문들과 자료들을 살펴볼 때 교회 구성원들의 지역성에 대한 관심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취급되고 있다. 교회가 일정한 지역을 복음화 하는 전략에 대한 연구와 실천은 많이 취급되고 있으나 그 교회 구성원들이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을 실천함에 있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교회의 구성원이 일정한 지역을 벗어나게 된 것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시작되었기에 교회의 지역성 문제를 심각히 다룰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교회의 지역성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도시가 급속히 팽창하고 교통, 통신의 발달, 주거지의 급속한 이동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교회는 지역성을 상실하기 시작했고, 도시 교회들은 그 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러한 환경에 적응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다.

두 번째 이유는 심각한 교파 분열이 교회의 지역성 상실에 한 몫을 하였다. 같은 교단 내에서 교회를 세운다면 기존 교회 바로 옆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지 못할 것이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한 건물 내에 여러 개의 교회가 경쟁하듯이 세워지는 것은 수많은 교단과 교파로 나누어진 교회의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지역, 동일한 주민을 대상으로 경쟁적으로 전도해야 하는 현실에서 교회의 지역성과 지역성에 입각한 전략 자체를 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역성 문제는 이제 심각하게 다루어질 때가 되었다. 전체 인구 대비 기독교인의 비율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변화가 없고 영향력이 갈수록 감소되는 것을 보며 교회 건설과 복음화 사역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교회의 지역성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3) 개인의 성장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간적 변수

운동선수가 경기를 치르려면 운동장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 운동선수가 운동장을 달려 뛰지 않으면, 아무리 후보 선수라도 운동장을 열망하지 않으면 그는 운동선수라고 할 수 없다. 운동선수는 운동장을 달릴 때 그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 그들이 살고 쉬는 곳에서 일상적으로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단지 그들과 어울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을 방문한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큰 충격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다.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막2:16).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 세리들은 죄인의 대명사였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금하였고 그들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만나실 뿐 아니라 그 집 에까지 가서 그들과 식사를 하였던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불신자들과 교제를 단절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친구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그러한 분위기로 계속 대우하려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 어려운 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들과 삶의 의사 소통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송두리째 내팽개치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분리되었음을 강조하는 성경 본문을 살펴볼 때 그것은 죄 짓는 그리스도인들과 죄된 것들로부터의 분리여야지 잃어버린 자들로부터의 분리는 아니다⁴⁾.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우리의 전도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제리 화이트'의 말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들을 집으로 초청하고 그들의 집에 방문하고 이웃사촌처럼 가까이 교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주어진 문화적 여건 속에서 지나는 지역적이고도 시간적인 교회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⁵⁾.

2. 교회 구성원의 지역성에 대한 성경적 고찰

교회 구성원의 지역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찾기 어렵지만 일정한 지역을 범주로 하여 교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교회의 실재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근거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4) Jerry White, 네비게이트 번역, 「그리스도의 주재권」, (서울: 네비게이트 출판사, 1988), P.194.

5) Howard Synder, 김영국 역, 「그리스도의 공동체」,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P.74.

(1) 성경에 나타나는 지역 개념

① 초대교회의 전도 전략에 나타나는 지역성

초대교회가 설립되고 복음화의 사명을 수행해 가는 장면들을 보면 교회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지역 내에 함께 거주했음을 쉽게 헤아려 볼 수 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종류의 모임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 있다.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집이 전도를 목적으로 사용되었고⁶⁾, 고린도 회당 맞은 편에 위치한 디도 유스도의 집과⁷⁾, 루디아의 집과 빌립보 간수의 집을 전도의 중심지로 사용하였으며⁸⁾ 스테바나도 고린도의 그의 집을 성도를 섬기는 장소로 제공하였음을 볼 수 있다.⁹⁾

기독교인의 가정이 기도회의 장소로¹⁰⁾, 저녁 교제의 장소로¹¹⁾ 즉석 복음 집회의 장소로¹²⁾, 기독교의 복음을 듣기 위한 계획된 집회 장소로¹³⁾ 사용되었다¹⁴⁾.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기록하여 초대교회 모임 자체가 비슷한 생활권역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각종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들이 빈번히 있었음을 살펴볼 때 그들은 일정한 지역 내에 함께 거주하면서 수시로 오고가며 교제하는 가운데 공동체를 형성해 갔을 것이다.

②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에 나타나는 지역성

갈라디아에는 그 지역적인 구획 내에 있는 각 마을이나 지역 사회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교회들이 여러 개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한 도시의 의미로¹⁵⁾, 사람의 의미로¹⁶⁾, 그리고 작은 가정 교회의 의미로¹⁷⁾ 사용하여

6) 행17:5

7) 행 18:7

8) 행16:15, 32-34

9) 고전16:15

10) 행12:12

11) 행21:7

12) 행16:32

13) 행10:22

14) Michael Green, 박영호 역, 「초대교회 복음전도」, P.402-403.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15) 고전1: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16) 살전1:1,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란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공동체'임을 보여 주고 있다¹⁷⁾. 확실히 지역 교회는 하나의 개체를 형성하기 위한 가장 의미 있는 구성 단위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우주적인 교회는 지구상에서 그와 같은 개체성을 결코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뉴비긴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교회를 여러 단위로 구분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지역교회는 확실히 탁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같은 떡과 잔을 나누고, 말씀이 선포되는 가시적인 교제권을 형성하며, 서로 이웃이 되어 참된 인격적인 만남의 장을 형성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 줄 수 있고 사랑으로 서로를 교정해 주며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이웃들의 몸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일차적인 구성 단위로 간주되어야 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¹⁸⁾.

③ 유대인의 생활 지역에 대한 두 가지 고찰

a.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행1:12)'에 담겨 있는 생활권의 의미

이것은 유대 법으로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는 제한 범위를 설정한 것인데 이러한 제한은 출16:29에 대한 랍비들의 주석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안식일에는 자신의 처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한 율법을 당시의 랍비들이 최소한의 활동권 내지는 생활권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 거리를 두고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으나 2.8km 정도의 거리라고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견해를 보인다¹⁹⁾.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지만 당시로서는 모든 이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즉 안식일에는 일정한 생활권 밖으로 여행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b. 생활권의 중심지였던 '회당'에 나타난 지역권의 의미

유대인들은 성인 10명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세웠다. 이러한 회당은 유대인들의 생활과 교육의 중심이 되었는데 큰 도시에는 수많은 회당들이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AD 70년경에는 예루살렘에 394개의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²¹⁾. 이러한 회당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곳²²⁾이기도 하며, 복음 전도의 출발점이기도 했다²³⁾.

이러한 회당은 그 회당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의 일정한 생활 범위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들은 필요에 따라 생활의 중심부에 회당을 짓고 그 곳을 중심으로 하여 자녀를 교육하고 예배를 드리며 살았을 것이다.

④ '한 몸 된 교회'의 필요조건인 지역성

성경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다²⁴⁾. 교회에 대한 바울의 비유 가운데 가장 현저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²⁵⁾. 칼빈은 롬12:5절에 대하여 주석하기를 '우리가 한 몸 안에서 서로 연합하라는 조건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²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 이는 주님과 함께 하는 교회의 통일성이며 믿는 사람들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²⁷⁾.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세례 받아 그리스도에게 들어간 사람들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다²⁸⁾.

한 몸으로 구성된 성도들이 한 몸으로서 거룩한 교제를 할 때에 일정한 공간을 벗어나 상당한 거리를 두고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긴밀한 교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2) 지역교회에 대한 교회론적 고찰

신약에서 교회는 일차적으로 구체적인 지역교회를 의미한다(롬16:1; 고전1:2; 고후1:1; 갈1:2 등)²⁹⁾. 이는 제도적인 교회와 상관없이 교회 자체인데 삼위 하나

17) 롬16:5,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라'(원문 직역).
 18) Michael Griffiths, 권영석 역, '기억 상실중에 걸린 교회', P. 20.(서울, IVP, 1992).
 19) G. H. Lang, 'The Church of God', P.15에서 인용. (Paternoster Press, 1959).
 20) 제임스 M. 프리만, 남송현 역, 성경 속의 생활 풍속 따라잡기, P.225. (서울, 아가페, 1995).

21) Derek Williams, 「IVP성경사전」, (서울, IVP, 1998), P.554.
 22) 눅4:16
 23) 행 13:5,14
 24) 롬12:5; 고전12:13
 25) George E. Ladd, 이창우 역, 「신약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5), P.776.
 26) John Calvin, 칼빈 주석 출판 위원회 역, 「로마서 성경 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5), P.388.
 27) 갈 3:28
 28) Herman Ridderbos, 박영희 역, 「바울신학」, (서울: 지혜문화사, 1987), P.437.

님의 사역으로 생성된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연합된 언약의 교종인 교회는 지역적인 실체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교회는 거룩한 성찬을 중심으로 교제하는 지역교회로서 존재하며,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따라 은사 공동체로서 나타나며 봉사를 통하여 함께 소명을 이루는 지역교회이다³⁰⁾.

여기서 지역교회라고 할 때 그것은 전체 교회와 구별되지만 그것이 전체 교회의 "부분" 또는 "구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한스 쿡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마치 교회가 어디서나 온전히 현존하지 않는 양! 마치 각 교회에 복음의 온전한 약속과 온전한 신앙이 주어지지 않는 양! 마치 성부의 온전한 은총이 약속되어 있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가 현존하지 않으며 온전한 성령이 부여되지 않는 양! 전체 교회만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못된다'. 한스 쿡은 또한 역으로 전체 교회가 지방교회의 "집합" 또는 "연합"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지역교회는 그 지역에서 인간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지역에서 약속 받고 실지로 받아 가지고 있는 참교회라고 말한다. 즉 개별 교회가 모여서 전체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요, 전체 교회가 나뉘어 개별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자체가 여러 곳에 있다는 것이다. 각 교회는 아무리 작고 아무리 빈약하고 아무리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의 발현이요 실현이라고 주장한다³¹⁾.

이러한 지역교회는 완전한 교회로서 그 구성원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삶의 중심인 교회가 일정한 장소에서 회집될 때, 그것도 수시로 빈번하게 모임이 계속될 때, 교회는 일정한 범주 내에 구성원들이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교회의 구성원들이 한 몸으로서 성찬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며, 교제할 때 공간적인 한계를 심각한 장애로 가지고 있다면 교회로서의 본래적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3) 교회사적 고찰

29) 유희무, 「개혁교의학」,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P.532.

30) 유희무, 앞의 책, P.548-552 참조

31) Hans Kuug, 이흥근 역,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분도출판사, 1997), P.66.

초대교회가 수많은 난관을 뚫고 확장과 성숙을 이룩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한 형태로 교회 가운데 나타났는데 특별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초대 교회사를 쓴 '헨리 채드윅'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생활에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기독교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가장 큰 이유로서 꼽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터툴리안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다. '저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를 좀 보라'. 이것은 결코 비꼬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 고아들을 돌보고, 감옥에 갇히고 광산에 유배되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 형제들을 위문하며, 기근이나 지진, 역병, 전쟁시에 사회 봉사를 함으로서 기독교는 사랑을 전파하였던 것이다³²⁾.

한국 교회 초기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전해진다. 1899년에 어느 지방 고을의 관리로 임명된 사람이 그 곳에 기독교인이 많다는 이유로 부임을 꺼려했다는 내용이 대한크리스도인회보³³⁾에 실렸다³³⁾. 당시 전체 인구 중 기독교인의 비율이 극히 적었던 것을 상고해 볼 때, 한 고을에서 기독교인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던 지를 가늠하게 하는 기사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정한 지역인 고을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칠 때 가능한 일임에 틀림없다. 이와 유사한 예는 지방 여러 곳에서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지역적 영향력을 토대로 한 기독교인의 역량은 그 후 독립협회가 창설되어 민족운동을 전개하였을 때 지방 지회 활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³⁴⁾. 뿐만 아니라 3.1운동과 일제하의 한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을 볼 수 있다.

3. 도시 내 지역사회와 교회의 지역성

(1) 도시 내 지역사회

①지역사회의 정의와 특징

교회는 일정한 지역사회 안에서 그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서 특별한 역할을

32) Henry Chadwick, 서영일 역, 「초대교회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66.

33)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편, 「한국 기독교의 역사I」, (서울: 기독교문사, 1989), P.261.

34)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편, 앞의 책, P.262.

하도록 세워졌다. 여기서 지역사회라는 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접근하면서 정의를 내리는데 지리적 영역을 배경으로 하여 사회적 유사성, 공통된 사회적 규범, 공통된 전통, 공통된 관습, 공통된 소속감 등을 공유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겠다³⁵⁾. 이와 같은 입장에서 지역 사회를 정의한다면 지역사회는 동질성을 가진 일정한 인구가 지리적, 생태학적, 지리적으로 한정되고 근접한 지역에 살고 있으며, 역사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고 일련의 기본적 봉사 기관을 가지고 있고, 공동의 생활 방식에 참여하고 있으며, 단일성 의식을 가지고 있고 협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공동체 사회라고 정의할 수 있다³⁶⁾.

②지역사회의 변화

사회는 계속하여 변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급변하고 있음을 본다. 대개 전통 사회에서는 지역사회가 공동사회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익 사회의 성격이 강하게 되었다고 한다³⁷⁾. 이러한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변화되는 원 인들을 살펴보면 인구의 증가, 경제 발전에 따른 산업화, 그리고 이에 수반된 도시 화,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발달, 정치 구조의 변화, 이들 변화에 뒤따른 가치관과 도 덕 규범의 변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지역사회의 성격 변화는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물론 평등주의 가치관, 개인의 존중, 성공에의 기회 확산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가 두드러지게 보인다. 특히 도시 지역사회의 경우 거주자들은 직업, 계층, 고향, 교육 정도, 사회적 지위 등의 상이한 이질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상호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므로 자연히 익명적인 사회를 이루게 되고 따라서 도시인의 인간관계는 자연히 피상적이고 기계적이고 공리적이고 일시적이 되기 쉽다³⁸⁾.

(2) 도시 교회 구성원의 거주 지역에 대한 표본조사

35) 권태준, 김광웅, 「한국의 지역사회 개발」, (서울: 법문사, 1981), P.22.
 36) 김종우,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39.
 37) 김종우, 앞의 논문, P.40.
 38) 이성근, 「불량 지구 개량 사업의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1979), P.62-64.

*아래 통계는 수도권에 위치한 한 교회를 표본으로 조사하였다. 청년대학부와 고등부 이하 주일학교 수를 뺀 장년 성도들만 계산한 것이며, 98년 1월 1일자 요람을 근거로 하였음.

〈전체 성도 지역 분포〉

전교인		반경1km이내 거주자		비율	
구역수	교인수	구역수	교인수	구역비	교인비
60구역	967명	12구역	258명	20%	26.7%

〈직분자 지역분포〉

구분	전지역	1Km이내	비율	
장로	19	2	10.5%	
권사	28	5	17.9%	
집사	남	152	29	19.1%
	여	271	54	19.9%

(3) 표본 조사에 대한 분석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하여 볼 때 반경 1km 범위 내에 거주하는 교인이 전체의 20%안팎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 되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교회 정책 결정이나 운영에 매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가장 쉬운 예로 주일 저녁 예배가 주일 오후 성경 공부로 변화 되는 현상은 이러한 현실적인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교회가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 성도들의 모임³⁹⁾인 것을 생각할 때, 모임 장소인 교회당으로부터 약 1km 밖에 산다는 것은 몸으로서 제 기능을 감 당하기 어렵다. 몸은 신속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면서 몸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그렇게 할 때 맡겨진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성도들이 자주 모여 함께 교제함에 있어서 거리적인 한계를 가지는 것은 심리

39) 교전 12:25-27

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한 몸으로서 교통하기 어렵다.

(4) 도시 교회 구성원들의 교회관

① 미국 도시 교회 구성원들의 교회관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기대가 무엇이나고 물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친교'이다⁴⁰). 그 외의 대답으로는 "훌륭한 설교", "음악 프로그램", "자녀들을 위한 청소년 활동", "편안한 마음" 등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이리 저리 떠돌아다닌다. 이것이 바로 "맥처치"(McChurch) 심리라고 불려진다. 아침에는 맥도날드에 가고, 점심때는 버거킹에 가고 하는 식의 현상이 교인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

교회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추는 소매점이 되었고 신앙은 일개 상품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Charles Colson은 단정적으로 말한다. 분명히 현대인들은 교회와 목사를 자주 바꾼다. 심지어는 거래 은행이나 단골 식료품 가게를 갈아치우듯이 교회를 쉽게 바꾸어 버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교회가 일정한 지역을 책임지고 목회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상들이다.

분명히 교회에 대한 생각에 문제가 있다. USA투데이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중 56%가 교회에 출석하는데 이중 45%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출석한다고 응답하였고, 26%는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분명히 교회 구성원들은 "내면적이면서 주관적인 성격의 보상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¹).

위와 같은 현상들은 분명히 교회의 본질과 다른 것이다. 물론 교회에 속하면 삶의 지혜와 평안함을 부수적으로 얻기는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흘려 사신 공동체로서 거기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름 받은 것이다. 자신의 주관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선택하며 배회하는 자들에게 C. S. 루이스의 말은 크나큰 각성을 주기에 충분하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는 것이 아니다. 그런 행복은 포트와인 한 병으로

얻을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다. 당신이 참으로 안락함을 느끼기 위해 종교를 원한다면 나는 결코 기독교를 권하지 않을 것이다."

② 한국 도시 교회 구성원들의 교회관

우리나라 6대 도시에 거주하는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객렬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만족하는 요인으로 첫째는 담임 목사 설교 둘째는 주일 대예배로 조사되었다⁴²). 얼핏보면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주일날 대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교인이 전체의 59.9%인 것을 감안할 때 그 실체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일성도'라는 신생어를 만들기도 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관에 있어서 교회 중심의 원리를 잃어 가고 있는 것이다.

교회관의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현상으로 현재 개신교인 중 소속 교회를 옮긴 경험이 있는 교인은 59.7%나 되어 전체의 과반수를 넘어섰다⁴³). 이것은 한국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교회간 교인 이동이 매우 심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종교인들 중 과거에 개신교인이었던 비율이 63.0%라는 것은⁴⁴) 교회를 다니다가 이탈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간이 갈수록 교인들의 활동이 주일 대예배 중심임을 볼 수 있는데 교인들 중 주일대예배만 드리는 자들이 전체의 59.9%이고, 실생활 속에서 드리는 예배로서 구역예배(25.8%), 수요일예배(24.1%), 철야기도회(14.0%), 새벽기도회(13.8%)는 참석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⁴⁵). 그 외에 각종 모임에 참여하는 비율도 매우 낮다. 성경공부 모임에 19.9%, 남녀전도회 모임에 17.4%, 중보기도모임에 10.4%, 전도 모임에 9.6%, 기타 봉사활동에 1.1%로 조사되었다⁴⁶).

(5) 도시 교회의 탈지역적 현상들

이러한 내용은 특정한 도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만 여러 곳에서 수집한 것이므로 특정한 교회와 연관된 것은 아니다.

42) 한국객렬, 「한국개신교인의 교회 활동 및 신앙의식 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객렬, 1998), P.114.

43) 한국객렬, 앞의 책, P.58.

44) 한국객렬, 앞의 책, P.17.

45) 한국객렬, 앞의 책, P.79.

46) 한국객렬, 앞의 책, P.83.

40) Charles Colson, 김애진 외 역, 「이것이 교회다」, (서울: 홍성사, 1997), P.50.

41) Charles Colson, 앞의 책, P.50.

①주일학교의 변화

어린이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부모님이 낮예배를 출석할 때 같이 차를 타고 왔다가 차를 타고 돌아가는 아이들에게 주일오후예배를 참석하라고 하기란 불가능하다. 주일학교 초중고등학교 예배가 마치도록 기다리는 아빠의 차는 90분 이상의 교육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중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어려워진다. 도시 교회의 큰 교회일수록 먼 거리에서 이동하는 학생들에게 주중에 개설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어렵다. 학생들은 일주일 내내 세상에 노출되어 세상의 영향을 강한 흡인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교회는 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주일에 모이는 2시간에 모든 것을 걸고 사역하려 한다. 이것은 애당초 무리이다.

②생활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교회

한 지역교회의 성도가 사정이 있어 먼 거리로 이사를 가게 되면 대부분 계속해서 그 교회에 출석하도록 권유받는다. 권유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요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봉사자가 다른 교회로 떠날 경우 교회가 받을 어려움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먼 거리로 이사를 간 그 성도는 먼 거리로부터 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때부터 상당히 많은 면죄부가 부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매일같이 새벽기도에 나오던 성도는 이제 나올 수 없게 된다. 가까운 교회로 새벽기도를 간다고 하지만 자신을 잘 아는 성도들이 함께 지켜보고 서로 격려가 되는 분위기에서 다니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먼 곳에서 한 지역교회 옆으로 이사온 성도는 바로 옆에 있는 교회로 직을 옮길 원치 않는다. 그 원인으로서는 새로운 사람들과 사귀어야 하는 부담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먼 거리가 그로 하여금 교회 옆에 살 때와는 다른 신앙 생활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교회 옆에 있으면 사람들도 많이 드나들고 그래서 피곤하고, 집에 있으면서도 교회에 안 나가면 괴롭고, 그래서 이제 먼 거리로 이사 왔으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인들 중 상당수는 주일 오전 예배만으로 만족하거나 밤예배는 자기 주거 지역 교회의 나그네 교인이 되어 버린다⁴⁷⁾. 이런 생활로는 신앙생활이 건전하

게 자라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③선교단체적 경향

선교단체는 전국적인 본부를 중심으로 하여 각 지역에서 활동한다. 그러므로 지역 사무실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는 없고 전체의 일부로서만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가 있음과 동시에 각 지역교회도 그 자체로서 완전한 교회이다⁴⁸⁾. 이런 점에서 선교단체의 한 지역사무실과 지역교회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가진다. 오히려 완전성에 있어서는 선교단체 본부와 지역교회 자체가 대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선교단체는 그 설립 성격상 전국을 기본 전략으로 하여 지역을 섬긴다. 그래서 선교단체 본부가 있는 그 지역과 본부는 뚜렷한 관계를 설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현상이 도시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큰 교회일수록 교회가 회집 되는 장소와 그 지역은 무관하게 보인다. 그 지역교회는 전국과 세계를 무대로 전략을 세우고 기도하며 선교사를 파송하기까지 하지만 바로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복음화에는 정작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각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였던 초대교회의 방향과 매우 다른 것이다.

이것은 각 지역교회가 진정한 연합과 협력을 교단의 이름으로 이루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온전한 교회로서의 각 지역교회가 세계복음화의 과업을 놓고 진정으로 협력하게 될 때, 특정한 교회가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면서 바로 그 지역을 복음화 시키지 못하는 현상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④교회 이름의 변화

도시 교회의 이름들은 매우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이제 교회는 그 지역의 영적 책임자로서 자리 매김 하는 것이 아님을 이름들 통하여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은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그리고 '지구촌 교회' 등의 이름은 한 지역을 돌보고 책임지는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전세계를 바라보는 매우 큰 선교단체적 인상을 준다.

47) 허순길, 「개혁해 가는 교회」, (서울: 총회출판국, 1996), P.86.

48) 한스 쾅, 앞의 책, P.67.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의 이름들은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 불려지고 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라고 불려진다. 성경은 거주지 중심의 신앙생활원리를 그 이름 가운데서도 보여주고 있다⁴⁹⁾.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이름들과는 달리 현재 도시 교회의 많은 교회들의 이름이 그 교회당이 세워진 지역과 무관한 이름을 선호하는 것은 중대한 교회론적 변화를 시사해 준다. 교회 이름의 변화가 교회론의 변화로 단정해서는 안되지만, 이러한 변화가 그 지역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나 영적인 대표성을 외면한 채 광범위한 책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치우친다면 전체 교회 혹은 보편 교회의 이상만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교회 없이 전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그 자체로서 온전한 지역교회가 있을 때 전국적이며 우주적인 교회가 있는 것이다.

⑤ 교인들의 수평 이동과 교인 관리의 허술함

한국 교회의 초기인 1892년에 여러 교파 선교회가 한국에서 활동함으로 인하여 있을 수 있는 갈등과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선교회간에 지역 분할이 추진되었다. 이것은 “교계예양(敎界禮讓)으로도 불리는 ”선교지역 분할협정“인데 여기에 보면 각 교회 교인들은 교파 소속을 옮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면서 ‘어느 한 교회의 교인이거나 원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로 옮길 때 먼저 교회 담임자로부터 추천장을 받지 않고는 옮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⁰⁾.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생활의 중심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직을 옮기거나 선택하려 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도 교회를 옮길 때는 반드시 이명서를 쓰도록 대부분의 교단이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문화된지 오래되었다. 이것은 교회를 옮겨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59.7%로 과반수를 넘는 현상을 보고 알 수 있다.⁵¹⁾ 이러한 와중에 앞에서 지적한 대로 많은 교인들이 신앙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III. 결 론

-교회의 지역성 회복을 열망하며

쉐퍼는 ‘세계가 불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불타는 세상에서 교회의 거룩과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개개인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전투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일정한 지역을 목표로 하여 공동체적으로 살아 내는 것이 중요하다.

더 이상 개교회 중심의 세계적 과업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가 위치한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실제적인 방안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함으로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는 교인들의 거주 지역을 따라 옮겨야 한다. 교인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해 간다면 가까운 교회로 나가도록 권면해야 한다. 만약 많은 교인들이 한꺼번에 신도시와 같은 일정한 주거지역으로 옮기게 된다면 분립교회를 세우든지 교회를 이전해서 성도들을 따라가야 한다.

둘째, 교인들은 가까운 지역교회에 출석하여 그 교회를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교단이나 교파의 중요성을 고려한 선택을 말하는 것이다. 적어도 교인들이 멀리 있는 나의 교회만을 고집하면서 신앙생활의 나태함에 면죄부를 스스로 부여받지 말자는 것이다. 성도의 삶의 중심은 교회에 있다. 삶의 중심인 교회는 거주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셋째, 지역교회는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일차적인 전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목사는 교인을 섬기지만 목사와 교인으로 구성된 교회는 그 지역을 섬겨야 한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내어야 한다. 그리고 난 후 국가와 세계의 복음화가 따라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선교단체와 명백히 구별된다.

49) 허순길, 앞의 책, P.87.

50)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편, 앞의 책, P.213.

51) 한국갤럽, 앞의 책, P.171.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실재적인 하나 됨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⁵²⁾ 이를 위하여 성도들이 일정한 지역내에 거주하며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은 어떠한 시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도서

국내서적

- 1) 권태준, 김광웅, 「한국의 지역사회 개발」, (서울: 법문사, 1981)
- 2) 유해무, 「개혁교의학」,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 3) 이원규, 「한국 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0)
- 4)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서울: 기독교문사, 1989)
- 5) 한화룡, 「도시선교」 (서울: IVP, 1993)
- 6) 허순길, 「개혁해 가는 교회」, (서울: 총회출판국, 1996).

번역서

- 1) Calvin, John 칼빈주석출판위원회 역, 「로마서성경주석」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5).
- 2) Chadwick, Henry, 서영일 역, 「초대교회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3) Colson, Charles, 김애진 외 역, 「이것이 교회다」, (서울: 홍성사, 1997).
- 4) Friman, James M., 남송현 역, 「성경 속의 생활 풍속 따라잡기」, (서울: 아가페, 1995).
- 5) Green, Michael, 박영호 역, 「초대교회 복음전도」,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6) Griffiths, Michael, 권영석 역,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 (서울: IVP, 1992).
- 7) Kuug, Hans, 이홍근 역,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분도출판사, 1997).
- 8) Ladd, George E., 이창우 역, 「신약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5).
- 9) Lang, G. H., 「The Church of God」, (Paternoster Press, 1959).
- 10) Murray, Leiffer, 박근원 역, 「도시교회 목회론」, (서울: 기독교서회, 1977).
- 11) Ortiz, Juan Carlos, 김성웅 역, 「제자입니까」, (서울: 두란노, 1989).
- 12) Ridderbos, Herman, 박영희 역, 「바울신학」, (서울: 지혜문화사, 1987).
- 13) Schaeffer, Francis A., 권혁봉 역,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 14) Scott, Waldron, 강선규 역, 「사회정의와 세계선교를 향한 제자도」, (서울: 두란노, 1989).
- 15) Stevens, R. Paul, 김성오 역,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서울: IVP, 1997).
- 16) Thompson, W. Oscar, 주상지 역, 「관계중심전도」, (서울: 나침반, 1985).
- 17) White, Jerry, 네비게이트로 번역, 「그리스도의 주재권」, (서울: 네비게이트 출판사, 1988).
- 18) Williams, Derek, 「IVP성경사전」, (서울: IVP, 1998).

참고논문

- 1) 고해성, 「도시화 지역에 있어서의 선교에 관한 연구」, (서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86)
- 2) 김문수, 「지역사회 선교를 위한 방안 연구」, (대전: 목원대학 신학대학원, 1990)
- 3) 김신국, 「도시화현상과 목회」, (서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87)
- 4) 김종우,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90)
- 5) 오용부, 「한국의 사회변동이 도시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원, 1988)

52) Francis A. Schaeffer. 권혁봉 역,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P.83.

6) 이성근, 「불량지구 개량 사업의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79).

참고자료

1) 한국갤럽, 「한국개신교인의 교회 활동 및 신앙 의식 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갤럽, 1998).

칼빈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관점에서본 성찬

조상우

I. 서론

제임스 스투어트(James Stewart)는 “바울 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칭의보다도 성화보다도 하나님과의 화목보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고 본다.¹⁾ 존 머레이(John Murray)도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보다 더 중심되고 기초적인 것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의 적용의 한 단계가 아니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구원의 적용에 관한 모든 국면에 적용된다”고 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의 교리에 관해 가장 중심되는 진리이다.²⁾

그러나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구원론을 전개해 나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이 점을 매우 강조한다. 칼빈은 구원론을 전개해가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성부께서 가난하고 곤궁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에게 주신 그 은총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는가?” 그리고 그는 이런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밖에 머물고 그와 분리되어 있는 한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받으신 모든 고난과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서 무익하다(III, i, 1)”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중요성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그와 한 몸이 되기까지 자라기 전에는 그가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다. 칼빈은 칭의와 성화에 관한 교리들을 진행하기 이전에 이 모든 것의 기초로써 그리고 이 모든

1) James Stewart, *A man in christ*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1935), 147.

2) John Murray, *Redemption-Accomplished and Applied* (Grand Rapids: Eerdmans, 1955), 161.